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삼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3)

계속되는 무더위가 사람들의 볼레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만큼이나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전도와 단기선교였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과 토요일, 후덥지근한 날씨 중에도 총력 교회전반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전도를 나가는 시간이 가장 더운 시작임에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홀려나리는 탐과 사람들의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는 전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딤후 4:5) 또한 단기선교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팀들은 물론이고 중화생물로부터 연료하신 어르신들까지 현재 많은 단기선교팀이 선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복음전파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의 직접적인 동참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막 16:15)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극적인 현상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히 4:16) 그러나 우리는 인간, 사물, 직장 등 무슨 관계든지 간에 자기에서부터 자신을 보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 직업, 능력, 가족 관계, 친구, 종교기관 등으로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려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이러한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일시적이라는 사실이다. (전 8:17) 그렇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확실한 것, 변치 않는 나의 정체성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인가?”의 대답이 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유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은 사역가, 운동선수일 수도 있다.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회)

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으로는 죽은 자들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은 아담의 것과 정반대이다. (롬 5:18-19)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의 결단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과거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도 아픔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의 과거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가고 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되었는가? (요 8:12,32) 여기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의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 자들로 보신다. (고전 6:19)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새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고후 4:3)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하더라도 나쁜 습관이나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 얽매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는 오직 두 종류(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의 사람만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준다. (고전 15:22) 이 사람, 즉 아담이 우리의 머리로서 가정의 머리가 되며 우리들에게 가족의 이름이 되는 성과 그의 성품 또는 유산, 운명을 넘겨준 사람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담이 범죄한 후 죄성을 지닌, 영원히 영적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던 말인가? “.....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행 2:37-38) 세례에 담겨져 있는 뜻은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를 말한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넣어 주신다. (고전 12:13)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즉시 일어나는 것이 곧 이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에 곧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된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당신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가정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은 당신이 받을 유산이 아니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베후 1:4) 이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행실을 가리켜서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변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행실의 변화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갈 2:20)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 놓여 있다. (롬 6:11~13)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신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떤 형태로 처하였던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행실을 불참가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참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처럼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히 4:16) 또한 왕의 자녀처럼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 아멘.

THE CHURCH GLORIOUS & TRIUMPHANT

***(18)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19)“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Matthew 16:18~19)

Nothing is more glorious and triumphant or more misunderstood than the church. When we speak of the church we are, more often than not, referring to the building where the church meets for worship. When Christians do talk about their church, other than its physical structure, they usually profess its great music, wonderful pastor, awesome choir, or large following. Sadly, most church goers do not know the meaning of church. They should know the church as glorious and triumphant, the born again body of believers in this world whose head is Jesus Christ, but they don't. The next time you run into an enthusiastic church goer, ask him or her to tell you what is good about their church. You will probably hear about many things, but I doubt you will hear the person say, "It is hard to find my church, which is filled with born again Christians and where Jesus is the head." Jesus sai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v. 18) People never think about this meaning. Instead, they focus on church leaders, church members, educational programs, teachers, and numbers; they do not look at the cross, Jesus, and hell. Jesus said,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v. 19) Do you understand how much power the church has? Do you see how glorious the church is? I don't know how to explain how powerful, glorious, and triumphant it is because it is so great. I do know that people do not think about the church like this, and we should repent. If your heart and mind truly focus on today's Bible verses, you will get a glimpse of how spectacular the church is. Leave your pride behind, so that when you read these verses you will be shocked at how strong the church is in this world.

What is the church? The answer is quite simple. It is the body of Christ! Ephesians 1:22~23 say, "And He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Colossians 1:18 also says, "He is also head of the body, the church; and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so that He Himself will come to have first place in everything." Who do you think is the head of the church? Most people think the senior pastor, elders, or board members. Jesus built the church and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Because of this, there is nothing you should worry about, for Jesus is God. He is the Creator. He sacrificed everything for you. He loves you tremendously. Why should you be discouraged? The church is the object of Jesus' affection,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Eph. 5:25) Do you realize how much Jesus Christ loves you? Sadly, you don't think about Him, you think about music, strong speakers, and ways to show others your talent. The church is the subject of Jesus' second coming,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2~3)

Whose church is it? A lot of congregation people think the board owns the church. God is the owner, for it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Jesus Christ claims possession of the church. He said, "I will build My church." (v. 18) He is the builder and architect. He designed the church. He is its author and perfecter,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 12:2) Jesus is also its interior designer. He has furnished the church with various ministries, "And God has appointed in the church, first apostles, second prophets, third teachers, then miracles, then gifts of healings, helps, administrations, various kinds of tongues." (1Cor. 12:28) Not only that, Jesus is its appraiser. He has determined the value of the church. He purchased it with His own blood, "Be on guard for yourselves and for all the flock, among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to shepherd the church of God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Acts 20:28) Jesus is also an occupant of His church. 1Corinthians 3:16 describes the local church as a temple of God inhabited by His Spirit,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a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What is the church's future? The church is the prize for which Christ will return. It is the only part of this world that will survive. 1 Thessalonians 4:16~17 say,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The body of Christ will be with Jesus for all time. The church will live with Christ eternally. Peter said,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which the heavens will pass away with a roar and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with intense heat, and the earth and its works will be burned up....look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because of which the heavens will be destroyed by burning, and the elements will melt with intense heat! But according to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2Pet. 3:10,12~13) Are you waiting for that day or do you want to stay a little longer?

My dear friends, let your spiritual eyes open to behold the glorious and triumphant church. Stop talking about the church like it is some kind of educational or entertainment center. Stop looking at it with worldly eyes. Right now, I'm asking you, is this church glorious and triumphant? ☞

교회의 영광과 승리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18~19)



김성원 목사

교회만큼 영광과 승리로 가득 찬 곳도, 또 교회만큼 잘못 알려진 곳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라고 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거둔단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주위에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18절)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지도자, 교회직원, 교육프로그램, 교사, 교인수 등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니다. 그들은 십자가나 예수님 그리고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9절) 교회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권세와 영광, 승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킨다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해 분문말씀을 읽으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22~23은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중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18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임목사나 장로 또는 당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열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큼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사심 같이 하라”(엡 5:25)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교회음악이나 감동을 주는 설교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밌하시는 목적이 바로 교회에 있

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당회나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18절)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요 설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교회의 내부설계 역시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직제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전 12:28)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감독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자신의 피 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 20:28) 예수님은 또한 교회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16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묘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상급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17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폭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폭어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10,12~13)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교회를 교육센터나 오락장소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충현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예**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7. 16.)

성경은?

(다모데후서 3:16~17)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인정한다. 성경 속의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삶에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성경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을 해석하며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세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성경구절을 찾아내고, 마음의 편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성경구절을 암송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삶의 기초이고 전부라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딤후 1:1,3,8,10) 바울은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강력히 권면하였다.(딤후 2:2,8,9,11) 또한 성경을 알고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망령된 가르침을 버리고 복음에 집중할 것을 가르쳤다.(딤후 2:15~16, 3:15, 4:2) 성경의 핵심이 복음에 있기에 온종일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가장 중대하다.

통일성을 이룬다 성경은 통일성을 이룬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성경은 성공자, 인격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1,600년에 걸쳐 기록된 성경이 통일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인간의 죄성을 낱알이 파헤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수백 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성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사 7:14), 미가 선지자(미 5:2)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정확히 이루어졌다.(사 53:3~5)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예언을 하였으며 이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다.(겔 37:12~14,26)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럼에도 우리들은 성경의 무한한 힘을 인간의 가치 안으로 가두고 있다.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자.

과학적으로도 정확하다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하다. 물론 모든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많은 영역들에 있어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창조가 그렇다. 하나님은 당시의 행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미 창조된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다.(창 1:26~28) 피의 중요성도 언급하셨다.(레 17:11) 우주의 존재(사 40:22)와 지구가 둥글다(욥 26:7)는 것을 밝히셨다. 또한 마지막 날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지구의 반대편 사람들의 밤낮이 다르다(사)는 사실을 언급하셨다.(눅 17:31,34~35) 성경이 기록될 당시 현대와 같은 과학기술이 없었음에도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오차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이 되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이 되었다. "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딸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는 예수님의 말씀에 견줄만한 보증을 없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친히 성경을 보충하셨다.(요 10:35; 마 14:49) 예수님이 친히 하늘보좌를 뒤로하시고 인간이 되셨기에 창조부터 기록된 성경의 보충은 이제 더 필요 없게 되었다.(마 19:4~6)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마 24:37~39; 눅 17:29; 마 12:39~41) 예수님이 성경의 보증자이다.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을 진실로 믿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로는 피조물이라 이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의 말씀도 믿자. 의심 없이 믿을 때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만이 지니는 놀라운 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다.(딤후 3:16~17) 수십 명의 사람들과 천 년이 넘는 간격이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예언과 일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성경을 보충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절대무오하다. 문제는 항상 인간 편에 있다. 성경을 대할 때 자신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자.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자.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자. 성경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오직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성경을 마음에 담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32

* 매주 월요일새끼기도(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의 사명

(6:6~13)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막 3:14~15) 열두 제자를 세우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행 1:8)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며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막 6:7)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도 하셨다.(막 6:8~9)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선교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선교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복음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이외의 것들을 강조하며 방법론을 찾고 있다.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계속 머물라고 하셨다.(막 6:10) 또한 예수님은 집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간관계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다.(눅 10:1,4~5) 복음 때문에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한다. 교회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마 10:9~10)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여 로마로 가던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은 이런 바울을 통하여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되게 하셨다.(행 27:24,37) 폭풍으로 인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되었고, 배 안의 사람들은 겨우 근처에 있던 멜리데 섬으로 갔다.(행 28:1)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언어의 준비도 없었지만 주님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선교를 해야 한다. 복음을 호리케 하려는

모든 동기를 막아야 한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열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할 때 밭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막 6:11; 눅 10:11) 이것은 더 이상 그 밭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행위이다.(행 13:46,51) 이 행위를 통해 그곳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열접히 있지 못하게 하셨다.(행 18: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막 6:13)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능이 나타날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분명 악마의 마귀의 반대가 있다. 그 형기에 양이 이리 가문대로 가는 것과 같다.(눅 10:3)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야 한다.(눅 10:18)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막 6:12~13)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이 깨어지더라도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 복음 때문에 필박을 받더라도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선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바울과 실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을 떠나 유령으로 건너갔다.(행 16:10~11) 바울과 실리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사바를 맺고 가족에 간헐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다.(행 16:25)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간수를 구원하셨고 빌립보교회를 세우셨다. 우리의 이심으로 어떻게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선교는 인간의 지식과 방법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한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선교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교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이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심을 믿자. 말귀우려나 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기쁨과 감사의 생수로

7교구 5지역팀

● 5년 동안 닫혀 있던 이 나라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첫 팀으로 사역과 정탐을 겸하게 되어 두렵고 떨렸다. 그러나 사역 첫날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새 힘이 솟구쳤다. 처음 만났던 그 지역의 어린이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전도하며 찬양을 부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생수를 느꼈다. (이순기 권사)

● 기쁨이 부족해서 하루는 일반 버스로 농촌 마을로 가게 되었다. 그때에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며 나아갔다. 마을에 있는 한두교 사원에 들어가 그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의 얼굴은 따가운 햇빛으로 빨갛게 익었으나 심령은 기쁨과 감사의 생수로 넘쳐났다. 날마다 순경만 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유연석 권사)

● 나는 사역지가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조금은 두려웠다. 그러나 첫날 선교지에서 예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뒤 속호전도를 나갔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고, 신명기 1장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서 먼저 가서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정희 집사)

● 밤새 많은 비가 내려 길에 너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차가 지나갈 수가 없었다. 남자 집사님들과 운전기

사가 힘을 합쳐 옮기려 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팀장님이 작은 톱을 구해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마을 사람들이 낮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잘라 주었고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권은미 성도)

●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꼈듯이, 저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희선 집사)

●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은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감동은 실로 대단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온몸이 전율했으며 눈물이 '펑~' 뚫었다. 우리 팀원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감사와 기쁨의 환희성을 마음속으로 지를 수밖에 없었다. (허용우 집사)

● 시골길을 가다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서 학교로 들어갔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길 잘 받아들였다.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니 어느새 35명의 전도생을 한 교실에 모아 주었다. 4살에서 12살 정도의 학생들은 밝은 미소와 맑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맞았고, 말씀과 찬양을 잘 따라하였다. 우리들의 어눌한 설명을 앞에서 선생님들이 보충 설명을 해 주었다. 학교를 떠날 때 주님의 역사하심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송현진 안수집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1일(월)-7월 28일(월)	10교구 2지역	정철석
7월 21일(월)-7월 29일(화)	21교구 4지역	박영근
7월 21일(월)-7월 29일(화)	2교구 4지역	홍순길
7월 21일(월)-7월 29일(화)	1교구 2지역	윤선한
7월 21일(월)-7월 30일(수)	18교구 3지역	윤해균
7월 22일(화)-7월 29일(화)	20교구 4지역	강석화
7월 22일(화)-7월 29일(화)	12교구 2지역	김명성
7월 22일(화)-7월 29일(화)	4교구 5지역	백봉선
7월 22일(화)-7월 29일(화)	6교구 1지역	박광식
7월 23일(수)-7월 30일(수)	9교구 6지역	조영규
7월 23일(수)-7월 30일(수)	10교구 5지역	김종성
7월 23일(수)-7월 30일(수)	18교구 2지역	이병근
7월 26일(토)-8월 2일(토)	22교구 추가	김종너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5일(화)-7월 23일(수)	7교구 2지역	최대환
7월 15일(화)-7월 23일(수)	19교구 1지역	박종태
7월 17일(목)-7월 24일(목)	24교구 6지역	임광진
7월 17일(목)-7월 24일(목)	24교구 9지역	박지현
7월 18일(금)-7월 26일(토)	13교구 7지역	이상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7일(월)-7월 15일(화)	11교구 1지역	이영호
7월 9일(수)-7월 16일(수)	2교구 8지역	한현석
7월 10일(목)-7월 18일(금)	23교구 1지역	박규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영유초중 도서실



석영식(장로, 영유초중 도서실장)

영유초중 도서실은 매주일 제1교과관 7층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영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용하는 영유도서실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초중도서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유도서실은 온돌바닥으로 되어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도서실은 청정한 종이의 출판도서(선교판 4종)라는 달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많은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서 3,219권과 영상자료인 DVD 117장, CD 6장, 비디오 테이프 345장 이상을 갖추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7-9) 영유초중 도서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다지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있으며,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편안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7명의 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유초중 도서실은 세상과 연결된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성경만을 가르치기 위한 곳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을 갖고 있어 우리의 혼과 영을 찢어 찢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유초중 도서실의 자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양육될 수 있기에 영유초중 도서실은 아이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초중 도서실에는 매주 약 350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영상물을 보며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와서 책을 보며 영상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귀한 복음을 접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유초중 도서실이 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열매

선교를 가려면 한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데……. 집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한동안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간청했다. “엄마가 선교를 가야 하는데, 네 도움이 필요해. 친구들 데리고 오렴.”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겠는가?” 성령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위한 선교인지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타성에 젖어 안 일함 속에서 적당히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쩌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가고 있어요.”라는 통명령 단번에 자존심이 상하기 일췌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속에서 애용해 하시며 내게 속삭이셨다. “순종하라!”고 말이다.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로구나! 아니, 왜 못한다고 하느냐?” 난 이 귀한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적당히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안타까움도 적극적인 마음도 없었다.

“전도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간다고 하느냐?”라는 호된 꾸지람을 들으며 난 뜨거운 회개를 하였다. “왜 내게 직장을 주셨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으시면 난 무슨 핑계를 할 수 있을까?” “2차 영성심사 때에는 어떻게 하지, 성령님을 속이면 어떻게 되지?” 계속적인 복음 속에서 심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고 적당히 하려는 속마음을 이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급급해 하며 방황한 채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책을 주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에 나가려는 결단은 없어 보였다. 나는 애가 났다.

그런던 어느 날 주님의 성리 속에서 그녀의 팔을 잡음을 딱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조바심으로 가득했던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했고, 목사님을 자랑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복음을 말하도록 이끄셨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셨다. 요즈음 그녀는 다른 동료들에게 “교회에 다니다.”라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릴 뿐이다. “오 주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만 제게는 순종만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순종,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기쁨도 함께합니다.”

(이선자(집사, 11교구))

말씀을 믿기만 하면

저는 올해로 교회를 다닌 지 3년이 되어갑니다. 교회를 오지 못할 만큼 바쁜 것도 아닌데 교회를 많이 빠졌습니까.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찬양집회 때 패인이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당연한 듯이 찬양을 불렀고 곧이어 위임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신자였던 저는 위임목사님의 설교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성경책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제가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는 뒤에서 위임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드디어 저의 귀는 조금씩 열렸습니까. 지난 금요찬양집회와 찬양예배에서 위임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믿는 것은 단순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은 믿는 일”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또 편해졌습니다. “너희 열매를 다 추게 할거니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요 15:16)는 말씀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꿀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들이 제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격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격정도 괴로도 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임니다.”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근심과 격정을 물리칠 수 있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분명 미숙하고 많이 부족해서 또 예수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주님과 함께 하고 그런 일조차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

(이혜연(고통부))

속 사람이 강건한 장년3부 청년들

“우리의 결혼은 약해져 가지만 속 사람은 주의 보혈로 강건해지자!” 장년3부 학생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장년3부는 60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여 남다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주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장년3부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한 자리를 이루는 곳이 장년3부입니다. “잘 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되는 장년3부 예배는 매 주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찬양과 눈물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 회복과 기쁨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일깨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감사 대신 불평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배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기도회를 기다리고 반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집회와 반모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장년3부로 오세요! 이곳에서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60대의 성도님들이 주일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권하는 많입니다. 이런 권면을 통해 장년3부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았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장년3부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60대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 장년3부, 강건해지는 속 사람을 사모하는 영적 젊은이들로 가득 찬 장년3부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서희자(권사, 장년3부)

2008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겨울성경학교가 잊고계 같은데 벌써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정식으로 소년부 생지침자의 자리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위한 체계적인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교사생활을 시작하는 동시에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된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년부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꽤 적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학교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기에 많은 부임이 되었으나 이번 마음이 좀 사라졌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선생님들의 준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찬양연습 등 여러 가지 준비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 선생님들이 성경학교를 위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간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지만, 이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이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창 3:2)이다. 7월 29일 화요일, 소년부뿐만 아니라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모든 학생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주님과 사미에게 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한다면 자기와 함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눅 18:17) 그만큼 어린아들은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의심이 없고 진실하다. 우리 초현의 소년부 학생들 또한 그러하리라 믿는다. 영혼이 맑아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리다. 영혼이 맑아 어린이들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항상 지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김 신(교사, 소년부)

2008년 신임서리집사 추가임명자

지난 7월 당회에서 2008년 신임서리집사를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각 교구에서 추천한 일꾼, 총 113명 가운데 각 교구 및 인사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최종 48명만이 추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일꾼 임명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영적 각성이 없는 분들은 우선 제외되었으며, 삼반기 금요 찬양집회 참석이 10회 미만이거나 기본적인 헌금생활이 전무하신 분들은 제외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가로 임명된 서리집사님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남집사

교구	이름	교적번호
7	김용대	90-247
11	김요중	99-203
12	이정현	4759
14	김대학	2005-0049
14	모상우	92-1339
18	김진호	2005-0147
18	박근웅	2006-0043
20	강문구	93-626
20	최형근	2004-0767
21	김백석	93-1933
21	조석희	1020
22	김성환	2980
22	차영민	2003-0298
23	이상수	4854
24	권동희	87-831
24	추승민	84-614

● 여집사

교구	이름	교적번호
3	오지수	85-352
3	이영희	354
5	김희순	2004-0297
7	박 정	94-836
7	전순희	2002-0363
8	박정연	579
8	주정순	90-628
10	강영애	80-734
10	노문자	99-301
11	임성이	99-203
12	임재혜	2006-0552
12	정은미	84-988
12	김경은	79-247
14	서지영	2003-0378
14	유지인	80-747
14	이정자	2005-0710

교구	이름	교적번호
17	안금희	2004-0652
18	김민희	94-350
18	신정숙	2003-0017
19	구순홍	98-676
19	서윤정	2007-0161
19	최영순	96-1126
20	권지현	81-283
20	이은숙	93-205
21	신남숙	1020
22	이영미	91-799
22	황은희	92-203
23	홍미경	2002-0147
24	구민자	2004-0457
24	김현아	81-389
24	서필선	84-496
24	홍희정	80-61

십자가의 길

교회 내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해를 거듭할수록 평년보다 더더욱 여름이 되고 있다. 그만큼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여름이 더욱 더워지고, 냉방수요 증가를 부추기고 있고, 초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범교회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 에너지절약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즈음,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 여름철 교회 내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1. 모일 중 그리고 모일 후 전장을 불시다 / 모일 중에 불필요한 전등이 있다면 꺼야 한다. 또한 모일 후에도 전장을 살펴야 반드시 소등하자.
2. 선풍기를 사용합시다 /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 에어컨 설정온도를 적절히(26℃) 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1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3.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끄시다 /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를 켜두면 전기 낭비는 물론, 제습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실내가 더욱 더워진다.
4. 점심시간엔 사무기기로도 유식을 불시다 / 점심시간에는 실내의 전등과 사무기기를 반드시 끄고, 컴퓨터와 모니터는 절전 모드로 설정하자.
5. 대기전력을 차단합시다 /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기요금만 가구당 평균 3만원이나 된다. 플러그를 뽑거나, 플러그를 이용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자.
6. 화장실에 관심을 가집시다 /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의 전등을 소등하고, 불필요한 물이 낭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고갈 때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하면 에너지절약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 내 에너지절약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가 제시한 실천방안 외에도 절약을 위해 한 마음을 쓰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살펴보자.

(편진국)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나의 작은 손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각 크기가 다른 종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어린 나로서는 그 종이 핸드벨이라는 것과 그 소리와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핸드벨을 알고 있을 무렵, 친구의 권유로 핸드벨을 시작하게 되었다. 핸드벨을 처음 만졌을 때 내가 어릴 적 느꼈던 환상과 아름다움 하모니가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자 지루해졌고, 점점 실증을 느낀 나는 연습시간에 지각도 많이하고 무단 결석도 많이 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하다가 다시 실증을 내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왜 핸드벨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지는 않았는가? 단지 핸드벨이 멋있어 보여서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나를 핸드벨 연주대로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손으로 연주하는 핸드벨 찬양을 원하시는구나! 정말 나의 진심 어린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탐자처럼 목적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 회개기도를 안 할 수 없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어 이후 핸드벨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핸드벨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는 큰 기쁨이자 감사가 되었다. 지극히 작은 악기이지만 연약한 것을 들어서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시는 은총의 비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이 작은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소중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린다. 나는 고백한다. "나의 주님, 나의 작은 손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조하은(성도, 핸드벨 연주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25	최규선	8	중등3부	
1526	송재윤	8	중등3부	
1527	황보라	13	청년2부	
1528	김연정	2	청년1부	
1529	하정애	11	청년1부	
1530	강영민	1	청년1부	서영남(6)
1531	정나희	10	청년1부	박성명(16)
1532	이재훈	17	청년2부	김형철(16)
1533	송광종	19	청년3부	박종순(8)
1534	박민성	19	청년2부	박종순(8)
1535	김용운	15	중등3부	박이민(15)
1536	명재현	1	초등부	곽노경(1)
1537	명요진	1	소년부	곽노경(1)
1538	이정근	10	청년3부	서규진(20)
1539	권대웅	20	청년1부	박희숙(20)
1540	세르게이	25	외선부	
1541	차나	25	외선부	
1542	소피보일	25	외선부	
1543	김정훈	21	청년1부	장진성(22)
1544	이연	25	외선부	이은혜(8)
1545	국화	25	외선부	김서영(7)
1546	이브케니야	25	외선부	
1547	오혜선	2	청년3부	권영선(2)
1548	권혜선	23	중등1부	장미정(22)
1549	박연진	5	청년1부	
1550	숙모리다	25	외선부	이득혜(5)
1551	김근주	23	대학부	
1552	황정연	2	청년1부	

* 중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